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령과 성경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성령과 성경」, 857–888쪽. 이 글은 처음에 D. A. 카슨·존 우드브리지가 엮은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1986), 213–235쪽에 실렸다. 프레임은 이 글이 본문 3–7장과 42장을 보충한다고 밝힌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성령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다고 말한다. 성령은 성경을 계획하고, 계시하고, 기록을 이끌고, 독자의 마음을 설득하신다. 1부는 “하나님이 쓰셨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인간적이고 고르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그 인간적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로 소통하셨다는 표지다. 2부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두고 현대신학이 정통주의를 비판한 세 가지, 곧 주권성(바르트), 대상(벌카워), 합리성(벌카워·로저스·맥킴)을 차례로 검토한다.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다. 성경은 영감 때문에 이미 객관적 권위를 가진다. 성령은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다. 성령은 죄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성과 성령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 성령이 성경에 관여하시는 여러 방식

프레임은 성령이 성경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신다는 데서 출발한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셋째 위격으로서 창조와 구속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셨고, 성경은 그 계획의 일부다. 성령은 천지 창조에도 관여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 가운데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령은 계시의 저자이시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는 일인데, 성령은 그 진리를 선지자들에게 알려 주셨다. 또 성령은 영감을 이끄신 분이다. 영감이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은 '내적 증거'로 듣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 글은 이 가운데 계시, 영감, 내적 증거 세 가지에 집중한다.

1. 성령은 성경의 계획부터 수용까지 관여하신다
2. 계획 → 창조 → 계시 → 영감 → 내적 증거
3. 이 글의 초점은 계시·영감·내적 증거
4. 본문 3–7장, 42장을 보충하는 글

> **에베소서 1:3**
> '신령한 복'의 '신령한'은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이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셨다는 근거
>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창세기 1:2**
>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 창조에 성령이 관여하셨다는 근거
>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시편 33:6**
> 말씀과 입 기운(영)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창조하심
>
>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시편 104:30**
> 주의 영을 보내 피조물을 창조하심. 창조에 성령이 계속 관여하심
>
>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 **이사야 61:1-4**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언. 성령이 진리를 알려 주심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고린도전서 2:9-10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이심. 계시와 영감에서 성령의 역할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숨)으로 된 영감의 대표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21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함. 성령이 기록을 이끄심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로마서 8:14-17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심. 내적 증거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10-16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함. 내적 증거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데살로니가전서 1:5, 2:13

말씀이 성령과 능력으로 이르렀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짐

데살로니가전서 1: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요한일서 2:27, 5:9

기름 부음이 가르치심,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의 증거보다 큼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5: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 2. 계시와 영감 ① 문제 제기 — 하나님이 쓰셨다면 왜 이렇게 '인간적'인가

프레임은 영감론과 계시론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지 않는다. 이미 좋은 연구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 정통 입장을 전제로 삼는다. 성경은 각 책의 원본에서 성령이 오류 없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라는 입장이다. 원본은 각 책이 처음 기록된 문서를 말하고, '오류 없음'은 흔히 무오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 저자도 많다. 겉으로 보면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책 같지 않다. 문체가 저자의 성격, 재능, 교육, 환경에 따라 다르다. 저자들은 서로 정보를 빌려 오고, 당시 다른 저자들처럼 역사 자료를 찾는다.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서로

성령은 무엇을 더하셨는가? 하나님이 영감하신 책이라면 더 고르고 정돈된 책을 기대해야 하지 않는가? 프레임은 이 질문에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되묻는다. 무슬림이 획일적인 책으로 여기는 코란 같은 책이 성경보다 나을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더 균일한 책이 그 목적에 더 도움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프레임은 하나님이 무엇이 구원과 성화에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겸손히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에 비추어 세 가지 설명을 제안한다.

1. 원본의 무오와 성령의 저자 되심을 전제한다
2. 성경엔 저자마다 다른 문체와 자료가 보인다
3. 질문: 성령이 쓰셨다면 왜 더 고르지 않나?
4. 되물음: 더 균일한 책이 더 나은가?
5. 하나님의 목적에 비춰 세 가지 답을 제안한다

> **요한복음 20:31**
>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됨. 성경의 목적을 기준으로 '더 나은 책'을 판단하게 함
>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디모데후서 3:17**
>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함. 같은 목적 논증
>
>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3. 계시와 영감 ② 상호교통 —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소통이다. 소통을 잘하려면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이 익숙하고 편하게 들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소통의 결을 그대로 담은 참 사람의 말이다. 어떤 종류의 '균일함'은 오히려 소통을 막는다. 문체가 모두 똑같으면 단조롭다. 모든 역사적 세부를 '학자처럼 깐깐하게' 말하면 이야기의 요점이 흐려진다. 누가 나이를 물었는데 태어난 시·분·초까지 말하면 대화가 오히려 막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히브리인에게 20세기 과학 언어로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간적 특성은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말씀하는 데 성공하셨다는 증거다.

1. 성경의 목적은 소통, 소통은 상대 언어로
2. 성육신처럼 말씀도 참으로 인간적이다
3. 지나친 정밀함은 오히려 소통을 막는다
4. 인간적 특성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 **히브리서 2:10-18**
> 예수님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처럼 말씀도 참 인간의 말임을 보이는 유비
>
> 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

> **히브리서 4:14-16**
>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임을 보임
>
>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

>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4. 계시와 영감 ③ 다양성 — 여러 얼굴을 가진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영원한 과거와 역사와 영원한 미래를 가르친다. 하늘과 땅, 별과 바다 같은 창조 세계의 여러 부분을 말한다. 모든 시대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에게 말한다. 구원을 마음에서 시작해 삶 전체에 미치는 총체적 변화로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을 담으려면 예술가의 솜씨도, 개념의 날카로움도, 분석의 명료함도 필요하다. 다윗의 시적 재능, 솔로몬의 지혜, 정의를 향한 아모스의 열정, 바울의 논증, 요한의 직관적 명료함, 누가의 역사 서술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더 균일한' 성경은 지금 성경보다 더 초라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진리는 시간·창조·사람·삶 전체를 다룬다
2. 다양한 진리에는 다양한 저자의 재능이 필요
3. 균일한 책은 구원의 풍성함을 담지 못한다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다윗(시편)·솔로몬(잠언 등)·아모스·바울·요한·누가의 글 전체를 예로 들어 저자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보인다

📜 5. 계시와 영감 ④ 신비 — 성령은 어떻게 영감하셨나

그렇다면 성령은 영감할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프레임의 답은 “신비롭게”다.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기대할 만한 방식이다. 성령은 가장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신적으로 일하신다. 소통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이다. 영감을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도 성경이 영감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경우는 있다. 이사야의 소명이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편지가 그렇다. 성령은 누가처럼 자료를 조사하고 추론하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때로는 저자가 달리 알 수 없는 역사 정보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통의 경우는 아니다. 어느 경우든 성령은 인간 저자를 통해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만들어 내신다.

1. 영감의 방법은 대부분 신비에 속한다
2. 가장 인간적이면서 가장 신적인 일하심
3. 구술처럼 보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4. 조사와 추론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
5. 결과는 언제나 소통에 가장 좋은 본문

> **요한복음 3:8**
> 바람이 임의로 불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의 일하심이 신비롭다는 근거
>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 **이사야 6:9**
>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받아쓰기처럼 보이는 영감의 예
>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 **요한계시록 2-3장**
>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대로 받아 전하는 형식의 예

> **누가복음 1:1-4**
> 누가가 자세히 조사해 차례대로 씀. 성령이 인간의 조사·추론을 통해 일하신 예
>
>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 6. 성령의 내적 증거 ① 배경 — 종교개혁, 칼빈, 그리고 세 가지 비판

내적 증거는 계시론이나 영감론만큼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신학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프레임은 이 부분에 더 많은 지면을 쓴다. 종교개혁은 '이신칭의'(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를 위해 싸웠다. 그런데 이 교리는 교회 전통과 부딪혔고, 그래서 성경과 전통 중 무엇이 더 높은 권위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교회의 증언 없이는 성경에 권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교회 전통이 더 근본적인 권위가 된다. 루터와 칼빈은 이를 거부했다. 성경 권위에 대한 최종 확신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에서 온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 교리를 루터보다 자세히 발전시켜 기독교 인식론의 중심에 두었다. 인식론이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따지는 학문이다. 칼빈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고, 교회는 오히려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성경의 신뢰성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있지만, 확신은 인간의 이성보다 높은 곳,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찾아야 한다. 동시에 칼빈은 성경을 버리고 성령의 새 계시를 찾는 '광신자'를 반대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며, 성령은 성경과 일치하는지로 알아볼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 이 교리는 해석이 갈리면서 논쟁을 낳았다. 오늘날 일부는 튜레틴, 보에티우스 같은 개혁 이후 정통주의가 이 교리를 무시하거나 오해했고, 그 결함이 하지와 워필드의 '구 프린스턴'에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프레임은 그 비판을 세 영역으로 정리한다. 성령 증거의 주권성(바르트), 증거의 대상(벌카워), 증거의 합리성(벌카워, 로저스, 맥킴)이다. 비판자들이 정통주의 역사를 바르게 읽었는가 하는 역사적 질문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맡긴다. 프레임의 평가는 이렇다. 현대 비평가들은 일부 성경적 강조점을 일깨워 주는 공로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혼란스럽다. 현대의 질문에 답하도록 다듬은 정통 입장이 그 혼란을 걷어 낼 수 있다.

1. 칭의 논쟁이 성경 대 전통의 논쟁으로 번졌다

4. 칼빈: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간다

5. 세 비판: 주권성·대상·합리성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이 절은 칼빈 『기독교강요』 1권과 3권의 논의를 근거로 든다. 성경 근거는 1절의 내적 증거 구절들을 이어받는다

📜 7. 증거의 주권성 ①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 그리고 바르트의 문제 제기

성령의 증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성경을 듣는 일은 한 권의 비범한 책과 거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일이다. 칼빈도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데 있다고 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공유한다'고까지 말한다. 프레임은 이 표현에 범신론, 곧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지우는 생각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래도 성경은 이 일을 그만큼 놀라운 일로 제시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자유를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신학은 정통주의를 공격한다. 정통주의는 '영감'과 '내적 증거'를 구분한다. 둘 다 성령의 일이지만 다른 일이다. 바르트 같은 신학자에게는 이 구분이 흐려진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종이에 고정하지 않으신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잃고, 한번 하신 말씀을 거두실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겪은 것도 오늘 우리가 겪는 성령의 조명과 비슷한 것이었다고 본다. 조명이란 성령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권위의 근거가 바뀐다. 정통주의에서는 영감이 성경을 권위 있게 만들고, 성령의 증거는 그 권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한다. 바르트 전통에서는 성령의 증거와 우리의 믿음 반응이 성경을 권위 있게 만든다. 프레임은 여기서 묻는다. 내가 믿기 전까지 아무 권위도 없는 책을 나는 왜 믿어야 하는가? 이 견해는 신정통주의, 곧 바르트 계열 신학의 세 가지 익숙한 생각과 맞물린다. 첫째, 성경은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둘째, 우리의 반응도 계시의 일부이므로 반응이 없으면 계시도 없다. 셋째, 본문에 오류가 있는지는 믿음과 상관없다. 바르트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무오한 정경을 손에 쥐면 하나님을 우리 통제 아래 두게 된다는

1.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
2. 바르트: 영감과 조명의 구분을 없앤다
3. 바르트: 성령의 증거가 권위를 '만든다'
4. 성경은 쓰일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5. 프레임: 믿기 전 권위 없는 책을 왜 믿나?

> **고린도전서 2:10**
>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심. 틸리케가 '하나님의 자기 지식 공유'의 근거로 쓰는 구절
>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고린도전서 13:12**
>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온전히 알리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앎을 보임
>
>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8. 증거의 주권성 ② 프레임의 반박 — 약속에 스스로 매이시는 주권

프레임은 무오한 정경이 하나님을 우리 통제 아래 둔다는 말이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성경 자체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스스로를 묶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아멘'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말씀은 전해 내려오는 진리이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여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에게 전하라고 거듭 명령하신다. 성경 저자들은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프레임은 방법론의 교훈을 끌어낸다. '주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고, 직관은 미세한 구분을 못 해서 우리를 잘못 이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제한'처럼 보이는 것을 모두 빼는 방식으로 주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무 제한도 없는 주권은 극단적인 유명론자만 떠올릴 생각이다. 유명론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본성이나 원리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보는 사고다. 칼빈주의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학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곧 선하심과 합리성과 위대하심에 매여 계신다고 인정한다. 하나님은 악하거나 어리석거나 약하실 수 없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도 매여 계신다. 그러니 문제는 '제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제한이 타당하냐'다. 정통주의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 주었다. 반면 바르트는 '하나님은 기록된 글이 영원히 참되도록 보증하실 수 없다'는 자기 주장을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길 뿐 논증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 자체의 입장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1. 성경은 무오 정경을 하나님 통제로 보지 않는다
2.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스스로를 묶으신다
3. 주권은 결코 헛되지 않은 말씀으로 드러난다
4. 무제한 주권은 없다. 성품과 약속에 매이신다
5. 바르트는 자기 제한 주장을 논증하지 않는다

> **고린도후서 1:20**
>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됨. 하나님이 약속에 매이신다는 근거
>
>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 **디모데후서 2:13**
> 주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 하나님의 성품이 '제한'이 아님을 보임
>
>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 **디도서 1:2**
>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같은 근거

약속하신 것인데

히브리서 6:18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음. 약속과 맹세의 확실성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0:8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섬. 말씀이 고정되어도 주권은 손상되지 않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3:6

전해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이 전수되는 진리의 몸체임을 보임

데살로니가후서 2: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유다서 1:3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고정된 내용으로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신명기 6:4-9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전수하라는 명령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8:3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같은 명령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기록된 말씀이 삶의 기준임

시편 1장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

시편 19:7-14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함. 기록된 말씀의 권위

[7]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또 주의 종이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 같은 근거

시편 119장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마태복음 5:17-20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심

[17]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37

내가 쓴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알라. 사도의 글이 곧 주님의 명령임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디모데후서 3:15-17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 기록된 말씀이 구원과 온전함의 수단

[15]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모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19-21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확실성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3:15-16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둠. 신약 기록의 권위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사야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 주권이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핵심 근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적 다스림의 도구이다."

📜 9. 증거의 주권성 ③ 정통주의 입장 — 다섯 가지 명제

프레임은 정통 입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신정통주의와 달리 영감된 본문은 실제로 있다. 하나님은 백성을 내면의 막연한 충동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고 부르신다. 둘째,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간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이 한쪽으로는 로마 교회, 다른 쪽으로는 '열광주의자'에 맞서 지킨 핵심이다. 열광주의자는 성경 밖에서 성령의 직접 계시를 구한 사람들이다. 성령은 말씀을 증언하실 뿐 말씀을 거스르거나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으신다. 틸리케는 성령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충만히 부어지셨다고 지적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증언하시고, 그 일이 이미 '주어진' 사실임을 지키신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여기에 한 가지를 보탠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그 사건을 증언하는 사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만 그 일을 증언하신다. 셋째, 말씀은 자증적이다. 자증이란 성경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증명한다는 뜻이다. 말씀이 최고 권위라면, 성경보다 더 높은 무엇으로 성경을 검증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된 말씀이 영들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그러니 누구도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과 맞세울 수 없다. 넷째, 권위의 근거가 영감이냐 성령의 증거냐는 질문에는 '권위'라는 말의 두 뜻을 구분하면 답이 나온다. 법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나에게 권위가 있다. 이것이 객관적 권위다. 하지만 내가 그 법을 알고 받아들여야 실제로 내 행동을 다스린다. 이것이 주관적 권위다. 성경도 영감 때문에 객관적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든 아니든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고, 불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않는 한 심판을 받는다. 반면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 곧 주관적 권위는 성령의 증거로 온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이 구분이 신정통주의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한다. 신정통주의는 주관적 의미에서는 옳고 객관적 의미에서는 틀렸다. 다섯째,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을 뒤집거나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적대적인 마음을 깨우쳐 말씀대로 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1. 영감된 본문은 실제로 존재한다
2. 성령은 말씀을 증언할 뿐, 거스르거나 더하지 않으신다
3. 말씀은 자증적이고, 영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4. 영감은 객관적 권위, 성령은 주관적 권위
5. 주권은 굳은 마음을 여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 **요한복음 14:26**
>
> 성령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은 이미 하신 말씀을 증언하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26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심. 성령의 증언 대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3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심. 성령이 말씀에 더하지 않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7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심. 성령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증언하러 오심(틸리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데살로니가전서 1:5, 2:13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감

데살로니가전서 1: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고린도전서 14:37

신령한 자라면 내가 쓴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기록된 말씀이 영적 주장을 판단함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요한일서 4:1-3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말씀이 영을 시험하는 기준이라는 근거

[1]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 10. 증거의 대상 ① 벌카워의 주장 — 성령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증언하신다

네덜란드 신학자 벌카워는 『성경』(Holy Scripture)에서 '추상적·형식적' 성경관을 비판한다. 그가 말하는 형식적 성경관은 성경을 신적인 글로 받아들이면서도, 처음부터 그 내용과 메시지를 함께 고려하지는 않는 태도다. 벌카워에 따르면 성령은 성경의 권위를 형식적으로 증언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성경의 내용과 메시지를 증언하시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언은 그 안에서만 일어난다. 또 이 증언은 믿는 사람의 상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와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하시면서 성경의 내용을 확증하신다는 것이다. 벌카워는 바빙크를 해석하면서 성령의 증거가 주지 않는 것들을 꼽는다. 성경의 진정성, 정경성, 영감에 대한 '직접적' 확실성, '그 자체로서의' 역사·연대·지리 자료에 대한 확실성, 해석되지 않은 사실로서의 구원 사건, 정경이 어디서 닫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다.

2. 성령은 성경의 내용과 메시지를 증언하신다
3. 성경의 증거와 양자 됨의 증거는 하나다
4. 역사·지리 자료를 '직접' 보증하진 않는다고 본다

> **로마서 8:14-17**
>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심. 벌카워가 성경의 증거를 양자 됨의 증거와 묶는 근거
>
>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 11. 증거의 대상 ② 프레임의 평가 — 메시지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다

프레임은 벌카워가 예리하지만 모호하다고 본다. 그의 논쟁적 진술에는 늘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벌카워는 성령이 성경 본문을 증언하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역사·지리 자료에 대한 증거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부인하는 것은 성령이 그것들을 '직접' 또는 '그 자체로' 증언하신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배제하는가? 다루는 순서의 문제라면 너무 사소하다. 강조의 문제라 해도 모호하다. 강조를 이유로 신학을 성경이 '강조한' 주제에만 묶을 수는 없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머리 가림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경건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벌카워는 '신뢰성' 장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히 한다. 공관복음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리키려는 목적에서 나왔고, 속이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억지 조화 시도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성경에 공증 문서 같은 정확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프레임은 이 말이 대체로 맞지만 새롭지 않다고 답한다. 정통 개신교는 오래전부터 무오성이 '학자적 엄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둘의 진짜 차이는 벌카워의 모호함과 숨은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피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그 열림의 한계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불트만의 비신화화를 거부한 정도가 전부다. 성경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비평에 대한 막연한 개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타락한 세상의 학문 유행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거듭 경고한다. 그러니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학문에는 경계하는 태도가 맞다. 그들 글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본 태도다. 그래도 벌카워에게 옳은 점이 있다. 난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옳다. 프레임은 구 프린스턴의 로버트 딕 윌슨이 “나는 난제를 피하지 않았다”를 모토로 삼았다고 각주에서 덧붙인다. 성령이 책의 권위만 따로 증언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옳다. 성경을 믿는 것은 그 메시지를 믿는 것이다. 동시에 메시지를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한다. 메시지가 곧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에 두지만, 역사와 지리와 과학을 포함한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과 삶의 영역에서 성경의 의미를 두려움 없이 연구해야 한다. 벌카워가 그런 연구를 막는 만큼 그는 틀렸고 해롭다. 정경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정통주의, 벌카워가 모두 같은 입장이다. 성령은 정경 목록이나 사본 문제의 답을 귀띔해 주시지 않는다. 정경 목록은 각 책의 내용을 역사적·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온다. 다만 성령은 교회를 깨우치고 설득해 참된 책과 거짓 책을 분별하게 하셨고, 확신의 근거를 찾도록 교회를 움직이셨다. 결론적으로 성령도 성경도 빠질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없다.

1. 벌카워는 예리하지만 수식어가 많아 모호하다
2. 무오는 '학자적 엄밀성'이 아님. 이미 정통 입장
3. 진짜 차이는 비평에 대한 막연한 개방성
4. 메시지를 믿으려면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한다
5. 성령은 정경 목록을 귀띔하지 않으신다

> **고린도전서 11장**
> 여성의 머리 가림. '강조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것도 정당하다는 예
>
>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

로마서 1장

진리를 막는 인간. 학문의 유행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근거 (원문 표기 '1:1'은 문맥상 1장 전체로 읽음)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고린도전서 1-2장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같은 근거

마태복음 7:15-20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알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

데살로니가후서 2장

미혹과 불법의 사람. 거짓 가르침 경고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

디모데전서 1:3, 4:1

다른 교훈과 미혹하는 영. 거짓 가르침 경고

디모데전서 1: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전서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베드로후서 2장

거짓 선생들. 같은 경고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

고린도전서 10:31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이 모든 직업과 영역에 해당된다는 근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10: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 연구는 그리스도께 생각을 굴복시키는 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12. 증거의 합리성 ① 앎의 세 요소와 성령의 자리

가리는 기준(규범)이다. 이론에서는 셋을 구분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떼어 내기 어렵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하나를 다른 하나로 흡수시켜 왔다. 관념론자와 실재론자는 주체와 객체를 두고 다퉜고, 흄은 자기 경험을 아무리 살펴도 '자아'를 찾지 못했다. 실존주의는 규범을 자아로 만들고, 밀 같은 경험론자는 규범을 감각 경험의 일반화로 만든다. 반대로 플라톤과 칸트는 주체와 객체를 규범 안에 넣는다. 기독교도 이 세 관계를 인정한다. 하나님은 세상(객체), 자신의 형상인 사람(주체), 자신의 말씀(규범)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죄인은 이 계시를 듣지만 억누른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고(객체), 말씀으로 그 뜻을 풀어 주시며(규범), 성령으로 마음을 바꾸어 믿게 하신다(주체). 기독교인은 이 셋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서로 맞아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셋이 같지 않다는 것도 안다. 나는 세상이 아니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며 세상과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셋 중 가장 확실해 보이는 하나만 붙들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 구도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주체에 초점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규범)도, 새로운 구원 사건(객체)도 아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에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대개 필요한 것은 새 정보가 아니다. 성경 밖의 새 계시는 결코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계시된 것에 나를 맞추는 내적 변화다. 우리는 교만해서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하다고 탓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 우리의 죄성을 문제의 뿌리로 가리키고, 그것으로 성령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1. 앎에는 주체·객체·규범 세 요소가 있다
2. 불신 철학은 셋 중 하나로 나머지를 삼킨다
3. 기독교: 셋은 한 하나님에게서 와서 맞물린다
4. 내적 증거는 새 계시가 아니라 주체의 변화
5. 인도에 필요한 건 새 정보보다 내 마음의 변화

> **로마서 1장**
> 죄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서도 억누름. 인간의 저항이 문제라는 근거
>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로마서 1:32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행함. 세상을 알 때 하나님의 법도 함께 알게 됨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창세기 1:28

땅을 다스리라. 사람(주체)과 세상(객체)이 같지 않다는 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창조하심. 말씀은 창조주, 세상과 자아는 피조물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짐. 같은 근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어짐. 같은 근거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누가복음 1:35

성령이 임하사 잉태됨. 성령이 성육신에도 일하셨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6:27-31

(각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음. 문제는 계시 부족이 아님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로마서 1:18-21

(각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보임. 계시는 충분함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디모데후서 3:16-17

(각주) 성경으로 온전해짐. 새 계시가 필요하지 않음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3

(각주)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 같은 근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 13. 증거의 합리성 ② 믿음도 추론이다 — 성령은 '보는 눈'을 주신다

프레임은 이성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추론은 학문만의 일이 아니라 늘 하는 일이다. 미식축구 쿼터백이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피하는 것도 추론이다. 논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늘 추론한다. 더 나아가 추론은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타당한 추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추론이고, 그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다. 그래서 신자가 세금을 속이려는 유혹을 이기는 것도 추론이다. 도둑질은 잘못이고, 속이는 것은 도둑질이니 잘못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도 순종이면서 동시에 추론이다. '맹목적 믿음'이라 해도 결국 하나의 결론이다. 물론 엉터리 추론도 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모든 추론이 엉터리라면 성경을 믿을 좋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그러면 성경을 믿을 의무도 없고, 결국 성경에는 권위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근거 있는 신앙고백은 모두 합리적 고백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은 주체 안에서 일하신다. 죄는 우리 눈을 멀게 해서, 근거 있는 결론조차 인정하지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추론이 아예 없거나 우리 확신이 근거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미 있는 근거를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여신다. 규범을 객체에 적용하면 합리적 결론이 나오지만, 그 결론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1. 이성 = 판단·결론·추론을 하는 능력
2. 타당한 추론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3. 맹목적 믿음도 결국 하나의 추론이다
4. 죄는 근거 있는 결론을 거부하게 만든다
5. 성령은 새 근거가 아니라 보는 눈을 주신다

> **로마서 1장**
> 죄가 진리를 막고 눈을 멀게 함. 문제는 근거 부족이 아니라 주체의 죄라는 근거
>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 **고린도전서 1-2장**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음. 성령이 주체를 바꾸셔야 함

📜 14. 증거의 합리성 ③ 칼빈의 표현, 개혁주의 인식론, 그리고 '직관'

세속 철학자들이 세 요소를 뒤섞었듯이 기독교 사상가들도 성령의 증거를 다른 요소와 혼동해 왔다. 프레임은 칼빈도 이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경쟁하는 것처럼 들린다. 칼빈이 의도한 바는 옳다. 많은 논증은 부실하고, 탄탄한 논증이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도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잘못 읽힐 수 있다. 첫째, 성경은 비합리적으로 믿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둘째, 성령이 부족한 근거를 메워 주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둘째로 읽으면, 성령 없이는 성경에 객관적 권위가 없다는 말이 되거나 성령이 새 계시를 주신다는 말이 된다. 칼빈은 그 둘을 모두 거부했다. 프레임은 칼빈의 가르침이 자기 모델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카이퍼, 바빙크, 도예베르트 같은 화란 신학자들이 칼빈을 다소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프레임 자신의 판단이다. 철학자 플란팅가의 '개혁주의 인식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추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토대'로 본다. 반 후크는 이 방식이 유신론 신앙의 합리성은 변호할 수 있어도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의 비합리성은 보여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임은 이 개념에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의 전제이자 규범이시기 때문이다. 전제란 모든 생각이 출발하는 가장 밑바닥 믿음이다. 하지만 합리적 전제와 비합리적 전제를 어떻게 가르는지, 기독교의 전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합리적 토대를 갖는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 개혁파가 내적 증거 교리로 이 질문을 덮어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성경은 합리적 근거의 부족을 메우려고 이 교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합리성과 성령이 둘 다 필요하다. 합리성은 믿음이 타당하고 의무임을 보여 주고, 성령은 그 의무를 거부하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프레임은 이 말이 합리주의처럼 들릴까 봐 균형을 잡는다. 이성에는 한계가 많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순종과 사랑과 신뢰가 들어 있다. 그것은 파동역학을 배우는 일보다 친구를 알아 가는 일에 더 가깝다. 사실 과학조차 순수하게 '중립적인' 지적 작업은 아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신비롭게 일하신다. 학위가 높다고 영적 통찰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도 않는다. 성령은 신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직관'을 주신다. 흰 것을 희다고, 단 것을 달다고 알아보듯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게 하신다. 그때 무시하던 말씀이 귀해지고, 수없이 거부했던 논증이 갑자기 타당하게 보이며, 복음의 아름다움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논의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불신자도,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추함을 더 좋아할 뿐이라고 구분한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새 마음이 곧 바르게 아는 능력이 된다. 끝으로 프레임은 모든 신자가 믿음을 증거와 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추론은 대부분 쿼터백처럼 일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합리성의 감각이면 대개 충분하다.

없다. 다만 각주에서 그런 시도는 일정한 순환성을 피할 수 없고, 사랑이나 기쁨처럼 설득력 있는 요소를 형식 논리로 담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1. 칼빈의 표현은 이성과 성령을 경쟁시키듯 들린다
2. 칼빈의 의도와는 조화되지만 표현은 다듬어야 한다
3. 플란팅가 '적절한 토대'는 가치 있지만 불충분
4. 성령은 신적인 것을 알아보는 '직관'을 주신다
5. 형식적 증명은 필수가 아니지만 금지도 아니다

> **요한복음 3:8**
> 바람처럼 임의로 일하시는 성령. 내적 증거가 교육이나 학위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근거
>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기독교의 합리성과 성령의 증거 사이에는 어떠한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 15. 요약과 결론 —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라

프레임은 두 갈래로 정리한다. 첫째, 계시와 영감은 '획일적인' 본문을 만들지 않았지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성령은 그보다 나은 것, 곧 인간 언어의 깊이와 풍성함에 걸맞게 충만하고 분명한 진리를 주셨다. 둘째, 내적 증거의 주권성, 대상, 합리성을 둘러싼 논쟁은 영감된 본문의 풍성함에 더 주의 깊게 묶여야 한다. 현대신학의 약점은 '주권' 같은 성경 개념을 가져다 쓰면서, 성경 안에서 그 개념에 붙은 조건과 쓰임새를 무시한 데 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실제보다 더 획일적인 책으로 다룬 셈이다. 성경의 주권 개념은 현대신학의 주권 개념보다 훨씬 풍부하고, 현대의 견해는 성경보다 철학에 더 많이 기대고 있다. 이런 방법의 문제는 다른 신학 영역에도 있다. 그래서 프레임은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1. 성경은 균일하진 않지만 충만하고 분명하다
2. 현대신학은 성경 개념을 맥락 없이 썼다
3. 역설: 현대신학이 성경을 더 획일적으로 봤다
4. 현대 주권론은 성경보다 철학에 빚졌다
5. 방법론에서도 성경 속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 **요한계시록 2:7**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글 전체의 마무리
>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영감
성령이 성경 기록을 이끄셔서 그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디모데후서 3:16의 '하나님의 감동'(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내쉬심')에서 나온 말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 새 정보를 주는 일이 아니다.

조명
성령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 바르트는 영감을 이 조명과 거의 같게

무오성
원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믿음. '학자적 엄밀성'처럼 모든 세부를 깐깐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증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없으므로 성경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증명한다는 것.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성경 책들의 목록(개신교 66권).

신정통주의
바르트 계열 신학. 성경은 성령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본다.

객관적 권위 / 주관적 권위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있는 권위 / 내가 받아들여 실제로 내 삶을 다스리는 권위. 프레임은 앞의 것은 영감에서, 뒤의 것은 성령의 증거에서 온다고 본다.

주체·객체·규범
아는 사람, 알 대상, 참을 가리는 기준. 프레임의 관점주의에서 실존적·상황적·규범적 관점에 해당한다.

전제 / 적절한 토대
모든 생각이 출발하는 가장 밑바닥 믿음 / 다른 추론 없이 받아들여도 합리적인 믿음 (플란팅가의 용어).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인간적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소통하신 증거다.
- 성경은 영감으로 이미 객관적 권위를 가진다. 성령의 증거는 그 권위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신다.
- 성령은 말씀을 거스르거나 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굳은 마음을 여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 이성과 성령은 경쟁하지 않는다. 합리성은 믿음이 의무임을 보여 주고, 성령은 그 의무를 거부하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7편 · 사람의 글, 하나님의 말씀 · 유기적 영감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